2016. 7. 14.(목)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세계일보

2016년 07월 14일 (목)
13면 전국

지자체, 동남아 관광객 유치 손 잡았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 5개 시·도 관광공사와 자유여행 설명회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서울과 인천시, 경기, 강원, 충북도 등 5개 시·도가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5개 시·도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및 쿠알라룸푸르 지사와 공동으로 14일과 16일 양일간 두 지역에서 '한국의 새로운 발견, 수도권 5개 시도'라는 주제로 공동 개별자유여행(FIT) 설명회를 개최한다.

5개 시·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별자유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방한 시장에 지역별 대표 관광콘텐츠는 물론 대중교통으로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양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회 참석자를 모집한 결과 220명 이상이 모집됐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모집 시작 3일 만에 130여명이 몰려 신청을 조기 마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경기도는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캠프그리브스와 더그림, 에버랜드, 쁘띠프랑스 등 경춘선이나 중앙선, 지하철 등으로 갈 수 있는 관광지를 소개한다.

서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고궁 야간개장, 음식 등 신규 관광콘텐츠를, 인천은 송도국제도시와 펜타포트, 차이나타운을, 강원도는 평창올림픽과 스키리조트 등을, 충북은 청남대와 속리산, 상수허브랜드 등을 각각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5개 시·도 홍보대표단과 설명회 참가자 간 상담을 실시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 및 추천 코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11.3 X 13.5 cm

서울신문
2016년 07월 14일 (목)
16면 전국

"협력 통해 상생발전" 손잡는 지자체들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함께 동남아 관광객 유치 위해 설명회
수원·전주 다방면 교류 자매결연

자치단체들이 상생발전을 위해 서로 손잡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는 함께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나섰고 경기 수원시와 전북 전주시는 교류를 통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자매결연했다.

5개 시·도는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및 쿠알라룸푸르 지사와 공동으로 14~16일 3일간 두 나라에서 '한국의 새로운 발견, 수도권 5개 시·도'라는 주제로 공동 개별자유여행(FIT)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5개 시·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별자유여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대표 관광 콘텐츠와 대중교통으로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홍보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회 참석자를 모집한 결과 양 지역 최대 모집 인원인 220명 이상이 몰렸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모집 시작 3일 만에 130여명이 몰리는 등 기대와 반응이 뜨거웠다.

박상덕 경기도 관광마케팅 팀장은 "공동으로 현지 마케팅을 추진해 비용을 절감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와 전주시는 이날 수원시청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 도시는 경제·문화·교육·체육·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내실 있는 자매 교류와 양 도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염 시장은 "전주시의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재생 노력과 도시디자인 정책이 수원시의 사람중심 도시정책 기조와 같다"며 "도시 간 다름은 교류 협력으로, 같음은 상생의 원동력으로 삼아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시장은 "수원시와 전주시가 닮은 듯,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정체성을 갖고 걸어가는 친구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해를 거듭할수록 돈독해지는 인연으로 두 도시가 화합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16.7 X 10.9 cm

파이낸셜 뉴스
2016년 07월 14일 (목)
25면 전국

경기·강원 등 5개 시·도 동남아 관광객 유치 나서

싱가포르 등 설명회 개최
볼거리·즐길거리 적극 홍보
말레이서 뜨거운 반응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와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가 함께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5개 시도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및 쿠알라룸푸르 지사와 공동으로 오는 14일과 16일 양일간 두 지역에서 '한국의 새로운 발견, 수도권 5개 시도'라는 주제로 공동 FIT(개별자유여행) 설명회를 개최한다.

5개 시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별자유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방한 시장에 5개 시도의 대표 관광콘텐츠와 대중교통으로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가 SN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회 참석자를 모집한 결과, 최대 모집 인원인 220명 이상이 모집됐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모집 시작 3일만에 130여명이 몰려 신청을 조기 마감하는 등 현지의 기대와 반응이 뜨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경기도는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캠프그리브스, 더그림, 에버랜드, 쁘띠프랑스 등 경춘선, 중앙선, 지하철 등으로 갈 수 있는 관광지를 소개한다.

이어 서울은 DDP, 고궁 야간개장, 음식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펜타포트, 차이나타운 등 도시 관광지를,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스키리조트 등 겨울축제를, 충북은 청남대, 속리산, 상수허브랜드 등 자연관광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5개 시도 홍보대표단과 설명회 참가자간의 B2C 상담회도 실시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 및 추천 코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좀 더 한국의 문화를 가깝게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한국 전통 음식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jjang@fnnews.com

20.5 X 8.5 cm

경인일보
2016년 07월 14일 (목)
02면 종합

23~24일 DMZ청소년 탐험대

중·고생 자전거·도보로 체험

경기도는 오는 23~24일 양일간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DMZ청소년 탐험대 '젊음, 평화와 통하다'를 개최한다. 연천·파주 DMZ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내 중·고생 145명이 탐험대의 일원으로 참여, 평화누리길을 누비며 DMZ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다. 첫날에는 자전거로 군남댐에서 임진물새롬랜드까지 11.5㎞를 달리며 연천·파주 DMZ 일원을 탐방한다.

임진물새롬랜드에 도착해서는 롯데삼거리까지 다시 4.7㎞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도 펼친다.

탐방이 끝나면 DMZ 관련 영상물을 시청하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날에는 파주 율곡습지공원에서 장산전망대 헬기장까지 5㎞ 도보 행진을 하며 정화활동을 한 뒤 임진각 평화누리에 도착해 타임캡슐을 묻는 이벤트에 참여한다. 참가자에는 수료메달이 수여되고 우수대원을 선발해 표창도 할 예정이다. DMZ 청소년탐험대 행사는 통일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DMZ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다음 달 11·12일 양일간 2차 행사를 진행한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10.0 X 8.8 cm

중부일보
2016년 07월 14일 (목)
23B면 사회

'태후 체험관' 송중기 볼 수 있지 말입니다

<태양의 후예>

관광公, 블러썸과 저작권 합의

배우 이미지 훼손 우려 적어

포스터·스틸컷 등 게시 허용

관광객 몰입도 향상 시너지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한 송중기의 포스터가 파주 캠프그리브스내 게시된다.

그 동안 송중기 소속사인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포스터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한국관광공사(관광공사)의 요구에도 '너무 남발하면 이미지가 안 좋아 질 수 있다'는 이유로 포스터 사용을 거부해왔다.(**중부일보 5월 11일자 1면 보도**)

관광공사 관계자는 13일 "소속사에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저작권 사용을 협의했고, 소속사측에서도 드라마가 종영후 상당 시간이 흘러 배우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협의에 응했다"면서 "파주, 강원도 태백, 정선 등 국내 태양의 후예 관광지 3곳과 인천 촬영지에서 드라마 포스터와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드라마 제작사, 배우 소속사와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함께있는 태양의 후예 공식 포스터와 제작사에서 촬영한 각 인물별 사진(스틸컷)은 파주시 군내면 적집자로 137번지 파주 캠프그리브스내 태양의 후예 체험관에 1~2년간 게시되며, 관광공사가 사용료를 지불한다.

이 관계자는 "당초 송혜교 소속사는 저작권 사용에 합의했지만, 송중기 소속사만 반대했다"면서 "뒤늦게라도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5월부터 파주 캠프 그리브스 DMZ안보체험관에서 막사 세트 체험, 군복 착용 체험, 포토존, 군번줄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저작권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궁여지책으로 배우의 캐리커쳐로 태양의 후예 촬영지임을 알렸다.

강원도 정선군은 지난 4월부터 촬영지 삼탄아트마인에서 'A-Train 태후를 만나다' 팸투어를 운영하고, 태백시도 지난 6월부터 한보탄광 채광 터에서 관광지를 운영중인데, 두 곳 모두 저작권 문제로 태양의 후예와 관련된 드라마 스틸컷 등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번 계약에는 3곳 관광지와 함께 드라마가 촬영된 인천 송도, 월미도도 포함된다.

공사 관계자는 "사용료와 어떤 사진을 사용할 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드라마 포스터와 배우 사진들로 관광지를 소개하면 관광객들의 몰입도도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성기자

23.4 X 12.4 cm

경인일보
2016년 07월 14일 (목)
02면 종합

동남아 관광객유치 '합심'

5개 시·도 해외서 설명회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가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다.

5개 시도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사와 공동으로 14일과 16일 양일간 두 지역에서 '한국의 새로운 발견, 수도권 5개 시도'라는 주제로 공동 FIT(개별자유여행) 설명회를 개최한다.

5개 시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시도의 대표 관광 콘텐츠와 대중교통으로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캠프그리브스, 더그림, 에버랜드, 쁘띠프랑스 등 경춘선, 중앙선, 지하철 등으로 갈 수 있는 관광지를 소개한다.

서울은 DDP, 고궁 야간개장, 음식 등 신규 관광 콘텐츠 등을,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펜타포트, 차이나타운 등 도시 관광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스키리조트 등 겨울축제를, 충북은 청남대, 속리산, 상수허브랜드 등 자연관광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박상덕 도 관광마케팅 팀장은 "수도권 5개 시도가 공동으로 현지 마케팅을 추진해 비용을 절감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도권 5개 시도가 생각보다 가깝고 재미있는 여행지임을 현지에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연기자 cool@kyeongin.com

4.9 X 21.0 cm